

Session 06 예수님이 친밀함의 기름부으심을 기경하기 (마 25:1-3) (Cultivating the Oil of Intimacy with Jesus)

I.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한 비유의 전후 문맥 (마 25:1-13)

- A.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를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연결 지으셨다. 마태복음 24-25장에서, 예수님이께서는 먼저 마지막 때에 대해 가르치셨고(마 24:3-44), 이에 대한 적용으로 세 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으며(마 24:45-25:30), 마지막으로 그분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 설명하셨다(마 25:31-46). 마태복음의 이 두 장의 내용은 “하나의 가르침”으로써, 리더들을 마지막 때에 대해 준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 B.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과 가장 큰 고난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대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계속해 나감으로 대 추수를 섬겨나가며, 사회의 일곱 가지 영역에 영향을 끼쳐나가야 한다. 빛이 증가하는 동시에 어둠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는 마지막 때까지 함께 자라나게 될 것이다(마 13:30).
- C.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오심이 지연되는 시간 동안 충성되게 서 있어야 한다.
1. 비유 #1 : 예수님의 오심이 지연되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짧다. 마 24:45-51절의 착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종류의 리더를 대비시킨다. 악한 리더들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권세를 남용했다. 착한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데에 있어서 지혜롭고 충성된 이들이다.
 2. 비유 #2 : 예수님의 오심이 지연되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길다. 마 25:1-13절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는, 우리의 신랑이자 하나님하신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기경하기 위해 성령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할 필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어떤 좋은 동기를 가진 분별 있는 리더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을 등한시함으로, 결국 잘못된 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
 3. 비유 #3 : 예수님의 오심이 지연되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다. 마 25:14-30절의 충성된 종의 비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작아 보이거나 어려워 보이는 때일지라도(마 25:21,24) 충성되게 섬길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작은 사역적 책임을 맡고 있다. 옳지 못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 잘못된 평가를 내렸고, 자신의 일을 등한시했다.
- D.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의 세 가지 측면, 즉 신랑이자 왕이시며 심판자이심을 강조하실 것이다(마 24-25장; 계 19장; 사 61-63장; 시 45편). 우리는 우리를 향한 신랑이신 예수님의 갈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왕이신 그분의 권능을 경험하며,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하시는 심판자이신 그분의 열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 24-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의 이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신다.

- E. 마 24-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대 환란 때에 권능과 승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신다. 교회는 대 환란의 마지막 시점에 휴거될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 제국 위에 심판을 풀어놓으시는 일에 기도를 통해 동역하게 될 것이며, 이는 마치 모세가 바로에게 열 가지 재앙을 풀어놓은 것과 유사한 일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도는 예수님의 재림 전인,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 제국 하의 열방의 악한 압제자들로부터 핍박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데 쓰임 받게 될 것이다.

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 31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휴거) (마 24:29-31)

- F.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 준비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권고하신 것은 깨어있어야 한다는 부분이며, 이는 성령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기경함을 말한다(마 24:36,42-44,50; 25:13).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 준비되어 있기 위해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10번이나 강조되었다(마 24:42; 25:13; 막 13:9,33,34,35,37; 눅 21:36; 살전 5:6; 계 16:15).

42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마 24:42)

13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 25:13)

- G. “기름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역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한다. 이는 자기 자신을 위해 “쉬는 시간을 가지며” 홀로 있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깨어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하며, 성령께서 우리 사회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 “기름부음 받은 관찰자”가 됨을 말한다. 또한 깨어있는 것은 말씀과 성령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밝히고 있는 것에 동의하며 믿을 기경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 H. 우리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며, 우리의 환경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깨어있음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게 된다.

말씀 :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징조에 대해 알며 지속적으로 찾아나가는 것을 말한다.

환경 :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성경에서 예언된 일들이 점차 나타나는 징조와 동향을 지켜보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 “기름부음 받은 관찰자”가 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삶 :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성령께서 일으키고 계신 변화에 대해 깨어 있음을 말한다.

- I.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사랑할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성령님과 연결되지 않고 이 일을 하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 된다. 나 자신은 이 부분에 대해, 차를 밀고 가기보다 연료를 넣을 시간을 가지라는 비유로 표현한다.

II. 마지막 시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 지혜로운 리더십에 대한 정의

Session 06 예수님이 친밀함의 기름부으심을 기경하기

1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2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마 25:1-2)

A. 처녀 :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의로 인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처녀와 같다(고후 5:17).

2 ...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후 11:2)

B. 등 : 처녀들 각자는 등을 들고 있었고, 이는 하나님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는, 사역(ministry)을 말한다(마 5:15-16; 계 1:20; 2:5; 11:3-6; 속 4:2; 사 62:1; 요 5:35).

C. 신랑 : 여기서의 모든 사역들은 신랑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있었다. 이 사역들은 신랑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그분을 경험한 사역들이다.

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 (계 22:17)

D. 그 때에 : “그 때”는 언제를 말하는가? 여기서의 “그 때”는 바로 앞 마태복음 24장에서 강조된 마지막 때를 말한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때이다.

E.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갈 때(마 25:1)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해서 기경하지 않으면 슬기로운 자들도 미련한 자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III.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 : 사역의 등불을 비추는 동안에도 기름을 얻음

2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3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마 25:2-4)

A. “기름”은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의 마음이 만짐을 받는 시간이다(고전 1:21; 요일 2:20,27). 성령님의 기름은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만지신다.

1. 이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이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더욱 느낄 수 있다.
2.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크게 한다. 이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갈망을 경험함으로 부어진다.
3. 우리의 이해를 더욱 밝혀준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계시에 대해.
4. 의를 향한 열심을 우리에게 부어주며, 우리를 공격하는 죄와 맞서는 우리의 싸움을 돋는다.

B. 미련한 처녀들은 등(사역)을 가지고는 갔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즉,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기름을 먼저 얻기보다 사역을 자신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추구했다.

C.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갔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확장하고 조직하기 이전에 기름을 얻는 것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추구했다.

D. 우리가 예수님과 가지는 관계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dream)”이며,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이 아

Session 06 예수님이 친밀함의 기름부으심을 기경하기

니다. 스가랴 예언의 “기름 발리운 자 둘”은 두 증인을 말하고 있다(슥 4:14).

IV. 마지막 시대의 선두주자 사역 : 세 가지 외침

5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쌔 6 밤중에 소리(표준새번역 :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7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쌔 (마 25:5-7)

- A. 역사의 밤의 한 중간에서, 선두주자들은 열방에 세 가지 메시지를 외치게 될 것이다.
- B. 첫째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그분이 가져오실 명백한 승리와 심판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부흥의 파도를 점진적으로 풀어놓으시며 “우리에게 오심”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다. 이 부흥의 파도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셔서 교회를 휴거시키실 때까지 점점 더 커지고 강화될 것이다.
- C.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신 신랑이신 하나님으로서 오신다는 것이다.
- D. 셋째로, 우리는 그분을 맞으러 나가야 하며, 예배와 순종, 기도와 말씀, 금식을 통해 우리 자신을 그분을 경험하는 자리에 두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 E. 그들은 모두 잠들었고, 모두 등을 준비했다. 이 비유에서 잠들었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은 모두 잠을 잔다(막 4:27). 이는 삶의 자연스런 과정을 통해 기름을 기경하게 됨을 말한다. 우리는 삶의 가혹한 시간, 일상적이며 평범한 시간 가운데도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5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쌔 ... 7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쌔 (마 25:5-7)

V.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기름을 기경할 것에 대한 엄청난 필요를 강조하셨다

- A. 미련한 처녀들은 그들이 기름을 등한시 했던 실수를 인식했다.

8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9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한글 KJV : 아니라, No)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마 25:8-9)

- B. 많은 “사역의 등불”은 성령님의 기름의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 꺼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사역을 지탱하기 위해 지혜로운 자들에게 기름을 달라고 요청했다.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지내온 시간들과 영적인 예비됨은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교회들의 “자기 계발(self-help)¹⁾” 설교나 “통속적 심리학(pop psychology)” 설교들은 마지막 때의 엄청난

1) 역자주 : 자기 부인의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빠진, 성공과 자기 계발을 향한 메시지들

Session 06 예수님이 친밀함의 기쁨부으심을 기경하기

필요들을 채워주지 못할 것이다. 그 때에 우리는 진리를 그저 외치는 자들이 아닌, 은밀한 처소에서의 삶에 대해 추구해 나가는, 외치는자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

- C.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 삶을 바꿔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를 확보할 수는 없으며, 이를 받기 위해 값비싼 희생을 치르며 우리 자신을 투자해나가야 한다.

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 (계 3:18)

VI. 다가올 성령님의 파도를 예비함

10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점진적인 부흥의 시즌)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은 닫히지라 11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12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 25:10-12)

- A. 이 구절은 구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알지 못하셨고, 신랑이신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로 인식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그분과의 친밀함이 부족함을 언급하고 계신 것이다. 이는 그들의 구원과 관련된 언급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악하거나 저주받은 자들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으며(마 24:48; 25:26,41), 그들을 전혀(never)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다(마 7:23).
- B.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 며칠 밤 동안 혼인 잔치를 여는 부분이 있다(부유한 가정은 월칙적으로 7일 밤 동안 잔치를 연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첫째 날 밤부터 초대받았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파도”는 마지막 때의 부흥의 충만함을 향해 증가되고 있으며,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서 최고 정점에 다다를 것이다(계 19:7-9).
- C. 오직 신랑과 친밀함으로 예비되었던 자들만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들은 마지막 때의 부흥에서 하나님에 의해 강력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비된 자들을 말한다. 오직 예비된 자들만이 첫째 날 밤부터 계속해서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 남은 이들은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외치고 있으며, 이는 마지막 때의 부흥에 자신들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부르짖음이다.
- D. 많은 이들은 가장 충만한 방법으로 쓰임 받을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권고는 깨어 있으라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열며, 신랑이신 그분과의 친밀함을 적극적으로 기경해나가라는 것이다. 기름을 얻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먹이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두게 된다.

13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 25:13)